



Issue Paper

하이디스, 두 번째 ‘쌍용차 사태’를
막기 위한 사회적 대책이 필요하다!

2013.1.28

한지원(연구실장)
jwhan77@gmail.com

1. 위기의 하이디스

소형 TFT-LCD 제조업체인 하이디스테크놀로지(이하 하이디스)가 창사 이래 최악의 위기에 봉착했다. 작년 12월 60여명에 대한 권고사직을 시도하더니 1월부터는 2개월간의 휴업에 돌입했다. 금속노조 하이디스 지회에 따르면 현재 하이디스의 생산 계획은 아예 2013년 전체에 걸쳐서는 잡혀져 있지도 않은 상태이며, 계획이 잡혀 있는 6월까지도 일부 제품만 간헐적으로 생산된다. 회사가 지속될 것인지 자체가 매우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하이디스에서 일하고 있는 930여명의 노동자들이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했다.

○ 경영 상황

부채비율 1,280%, 상반기 중 갚아야 할 빚만 1,570억원

하이디스는 2012년 9월까지 매출액 3,599억원에 당기순손실 327억원을 기록했다. 2011년 3분기에 비해 매출이 925억원 증가했음에도 오히려 손실이 91억원 증가했다. 즉, 하이디스는 현재 더 생산할수록 손해가 커지는 구조라는 것이다.

조금 더 지나봐야 나오겠지만 현재 추이로 보면 2012년 매출은 4천 5백억원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잉크(E-INK)가 하이디스를 인수한 이후 최대치다. 하지만 매출이 늘어나도 손해가 더 커지는 기형적 사업 구조로 인해 순손실은 2011년에 비해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1 > 주요 경영 지표 (개별 손익계산서)

	2011년	2011/3분기	2012/3분기	전년동분기대비증감
매출액	4,367억	2,674억	3,599억	925억
당기순이익	-134억	-236억	-327억	-91억

하이디스의 부채비율(부채/자본)은 2012년 3분기 현재 1,280%로 매우 높다. 한국 제조업 기업의 평균 부채비율은 90~120% 수준이다. 특히 2012년 3분기는 2011년에 비해서 부채비율이 두 배 넘게 증가했는데, 부채가 306억 원 늘어난 탓도 있지만 자본이 워낙 작은 상태여서 작은 적자에도 부채비율이 급등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유동 비율(1년 갚아야 하는 부채 대비 1년 내 현금화 할 수 있는 자산의 비율) 역시 2012년 3분기 말 현재 62%로 매우 작은 상태다.

표 2 > 주요 경영 지표 (재무상태)

	2011년	2012/3분기	증감
부채	2,640억	3,276억	306
부채비율	508%	1,280%	773%p
유동비율	120%	62%	-58%p

채무구조와 손익구조가 최악인 상태에서 올해 5월 채무 만기가 몰려있다는 점이 특히 문제다. 올해 상반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와 단기차입금은 각각 1,040억원, 530억원으로 합계 1,570억원이다.

표 3 > 회사채 만기일

종류	만기일	액수	상환방법	사채권자
무보증회사채	2013.05.04	811억	만기일시상환	YuenYu Investments Co.,Ltd.
무보증회사채	2013.05.04	114억	만기일시상환	ALCO Electronics Limited
무보증회사채	2013.05.04	114억	만기일시상환	Varitronix International Limited
무보증회사채	2014.11.25	352억	만기일시상환	E Ink Holdings Inc.
소 계		1,392억		

표 4 > 단기차입금

차입처	구분	금액(2012.06.30 현재)
E Ink Holdings Inc	운영자금	392억
China Development Industrial Bank	운영자금	138억
단기차입금계		530억

하지만 이 중 영유투자기업(Yuen Yu Investment)나 이잉크 홀딩스(E-INK Holdings) 채무는 계열사 간 채무로 경영진의 의지만 있으면 상환 연기가 가능하다. 실제 부도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채무는 알코전자(ALCO Electronics)와 베리트론닉스(Varitronix International) 사채 228억원, 그리고 중국개발공업은행(China Development Industrial Bank) 차입금 138억원이다. 합계 366억원에 관한 채무 상환 여부가 현재 하이디스의 계속 사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9월 말 하이디스의 현금성 자산은 53억원에 불과하다. 2012년도 순손실이 예상되고, 더군다나 2013년도 5월말까지 제대로 된 생산 계획이 없어 현금 유입도 크게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대만 본사의 자금 지원이 없이 366억원의 채무를 상환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 촉망받는 소형LCD 제조업체에서 부도 직전의 기업으로

2009년 “하이디스, 스티브 잡스 덕분에 다시 ‘부활’ FFS 입소문 타고 주문 쇄도”

2012년 “이천 하이디스, 대량해고 우려, 제 2의 쌍용차 되나?”

하이디스는 몇 해 전까지만 해도 가장 촉망받는 소형 LCD 제조업체였다. 하이디스는 광시야각기술(FSS, Fringe Field Switching) 원천 기술을 보유해 스마트폰, 태블릿 PC 시장 확대에 따라 가장 큰 혜택을 볼 기업 중 하나로 손꼽혔었다.¹⁾ 하이디스는 2000년대 중반까지 광시야각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태블릿PC용 LCD부분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²⁾했었고, 2009년 LG디스플레이, 2010년 일본 미츠미치 전자, 2012년 일본 샤프와 특허공유 계약을 맺을 정도로 세계적 대기업도 필요로 하는 기술 보유 기업이었다.

1) 하이디스, 스티브 잡스 덕분에 다시 ‘부활’ FFS 입소문 타고 주문 쇄도.

http://www.etnews.com/news/device/device/2260868_1479.html

2) 바이오하이디스 세계 태블릿PC용 LCD 1위.

http://m.etnews.com/news/device/1823828_4435.html

그런데 이런 하이디스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왜 하이디스는 자신의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서 성장을 해나가야 할 시기에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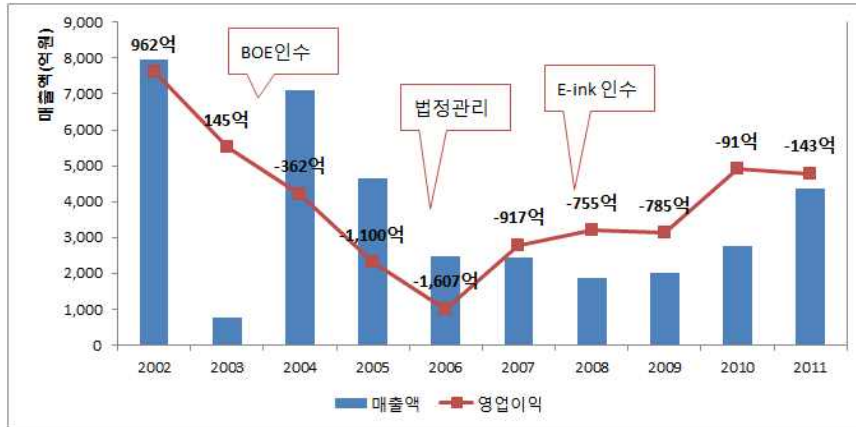
2. 정부 정책 실패와 먹튀 자본이 빚어낸 하이디스 비극의 역사

김대중 정부는 기술 사냥에 나선 중국 BOE에 아무 조건 없이 회사를 넘기고,
노무현 정부는 눈앞에서 기술을 빼가고 있는 BOE를 눈감아 주었으며,
이명박 정부는 다시 대만 E-Ink가 비슷한 행태를 보여도 신경을 쓰지 않았다.

하이디스가 이렇게 부도 직전까지 내몰린 것은 무엇보다 정부 정책 탓이 크다. 한국 정부는 김대중 정권부터 이명박 정권까지 무조건적인 해외매각으로 기술 유출 목적이 분명한 외국 자본에게 아무런 규제 없이 기술 유출, 자본 유출을 방치했다.

2002년 11월 김대중 정부는 매각만이 살 길이라는 신념에 사로잡혀 그야말로 ‘먹튀’가 뻥한 비오이(BOE)사에 하이디스를 팔아 넘겼고, 노무현 정부는 동북아금융허브를 만들겠다는 망상에 중국의 눈치를 보며 눈앞에서 기술을 빼가는 중국 경영진들을 4년간 방치하다 2007년 11월 법정관리 기간에 세금이 3천억원 넘게 들어간 하이디스를 또다시 노동자들의 반대 속에서도 대만 이잉크사(당시 이름은 PVI사)에 헐값에 팔아 치웠다. 이명박 정부는 제2의 먹튀를 방지하기 위해 인수합병 이전 분명한 투자계획서가 필요하다며 3개월 가까이 파업을 진행한 노동조합의 주장을 철저히 무시했다.

그림 5 > 하이디스의 10년 손익 추이



(자료: 하이디스 사업보고서 각년도)

중국에 매각 되기 전 8천억 매출에 1천억원 가까이 흑자를 내던 하이디스는 비오이 경영 4년만에 2006년 3천억 매출에 1천6백억원이 적자인 최악의 상태고 되었고, 대만 기업에 매각된 2008년부터 2012년까지도 계속된 적자와 구조조정을 겪어야 했다.

역설적으로 하이디스는 매각 이후 10년간 단 한 번도 흑자를 내지 못했지만, 중국과 대만 기업에 기술 유출, 자본 유출을 해주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었다.

○ 단돈 1원도 투자하지 않고, 4천여건의 기술을 유출한 중국 비오이

하이디스 기술로 중국 최신 LCD 공장 지은 후 하이디스는 부도.
단돈 1원도 들이지 않고 하이디스 기술 획득한 BOE는 삼성, LG 추격.

비극은 2002년 11월 김대중 정부가 부도난 현대전자(하이닉스)를 분리매각하며 LCD사업부(현 하이디스)를 중국 비오이(베이징옵토일렉트로닉스, Beijing BOE Optoelectronic)에 넘기면서부터 시작되었다.

하이디스는 사실 매각 초기부터 부실 매각 논란에 휩싸였었다. 비오이는 하이디스를 인수할 당시 LCD 생산 경험은 고사하고 변변한 전자 제품조차 없던 기업이었기 때문이었다. 중국 정부가 전자산업 핵심기술 획득을 목표로 전략적으로 설립한 회사로 목표 자체가 ‘기술 획득’이었던 회사였다.

더욱 황당했던 것은 이런 회사에 하이디스를 넘기면서 그나마 제 값을 받지도 못했다는 것이었다. 비오이는 형식적으로는 당시 3억8천만달러(약 4천억원)에 하이디스를 인수했지만, 실제 중국 비오이가 지불한 돈은 1천5백억원에 불과했고, 나머지 돈은 모두 한국에서 하이디스를 담보로 차입했다. 그리고 비오이는 이 1천5백억원마저 자본철수 하기 전 2005년 중반에 하이디스가 중국에 자기 자금으로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전액 회수해갔다.

비오이가 하이디스를 인수하자마자 한 일은 중국 비오이에서 LCD 패널과 모듈을 생산하는 것이었다. 2002년 11월에 인수를 하자마자 7개월 후인 2003년 6월에 중국에서 하이디스 기술로 LCD가 생산되기 시작했고, 2003년 9월에는 중국에 5세대 LCD 라인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비오이 경영진은 한국 하이디스는 소형 LCD 생산에 전념한다는 명분으로 한국에는 일체의 투자를 하지 않고 중국에만 하이디스 기술을 이용해 훨씬 생산성이 좋은 5세대 라인을 건설했다.

2004년부터는 아예 대놓고 기술유출을 하기 시작되었다. 하이디스와 비오이 간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후 기술공유를 한다는 명분으로 양사의 전산망을 통합, 라이선스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기술들까지 마음대로 중국으로 가져간 것이다. 2008년 검찰에 수사 결과에 따르면 2005년 4월부터 2006년 9월까지 프로젝트 문서 688건, 도면 2,195건, 기술문서 1,448건 등 모두 4,331건의 기술자료가 유출됐으며, 이 중에는 LCD 핵심 기술자료 200건이 포함돼 있었다. 하이디스가 보유한 대부분 기술 관련 자료들이 유출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³⁾

3)LCD 첨단기술 4300건 고스란히 샀다.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0808/h2008082903445822000.htm>

하이디스 인수 전 BOE가 만들던 제품	기술 유출 이후 BOE가 만드는 제품
	

다음은 일사천리였다. 비오이는 2005년부터 2006년까지 하이디스에 대규모 적자를 내도록 만들고 회사를 부도 처리한 이후 자신의 주식을 모두 소각하고 중국으로 철수했다. 중국 BOE는 2012년 1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올린 것은 물론 현재 삼성과 LG가 중국에서 가동하는 것과 같은 8세대 LCD 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2013에는 중국 정부가 3조원 이상을 지원하며 허페이와 충칭에 라인을 증설, 중국에서 LCD 생산 1위를 달성할 예정이다.

○ 기술은 특허공유로 빼가고, 생산은 외주. 이잉크의 또 다른 '먹튀' 수법

E-ink 경영진, 장치 산업이자 기술집약 산업인 LCD공장에 연 80억 투자? .

2006년 부도가 난 뒤 하이디스는 2년간의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었다. 비오이가 남긴 채무는 4천억원에 달했다. 산업은행이 비오이 인수 때 제공한 신디케이트론, 4년간 운영과정에서 빌려준 장단기 차입금, 회사채 등 채무 내역도 다양했다.

이런 가운데 지분 40%를 소유하고 있었던 산업은행은 2007년 11월 대만 프라임뷰 (Prime View) 컨소시엄과 매각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다음 해 하이디스를 2천6백억 원에 매각했다. 프라임뷰컨소시엄은 대만에서 전자책 사업과 LCD패널 사업을 하던 PVI(이후 이잉크로 이름이 바뀜)가 주도한 컨소시엄이다.

그렇다면 대만 이잉크는 이전 비오이와 달랐을까? 비극적이게도 전혀 그렇지 않았다. 단적인 예로 대만 경영진 하에서 하이디스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지출한 설비 투자액은 약 4백억원에 불과했다. 그 기간 매출액의 2%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LG디스플레이가 매출액의 17%, 19조원을 설비에 투자한 것과 비교해보면 하이디스가 얼마나 투자를 하지 않았는지 알 수 있다.

표 6 > 2008~2012년 설비투자 규모 비교

	하이디스	LG디스플레이
5년간 설비투자액	4백억원	19조원
매출액대비설비투자비율	2%	17%

(자료: 각사 현금흐름표 각년도)

하이디스는 영업용 간판으로 활용하고, 정작 생산은 대만 내 회사에서 하는 E-ink

대만 경영진은 기술개발과 설비 투자를 통해 하이디스를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이디스의 기술을 이용해 대만 본사의 영업을 확대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 이잉크는 하이디스 기술을 이용해 전자책 뷰어로 유명한 아마존 킨들이나 새로 태블릿 PC 시장에 진입하는 구글과 같은 업체에 공급을 확대했다. 이잉크사는 또한 하이디스를 매개로 여러 LCD 제조업체와 특허공유 계약을 맺으며 사업을 확장했었다. 2009년 LG디스플레이, 2010년 일본 알파테크놀로지와 미쯔비치 전자, 2012년 일본 샤프 등이 그 대상이었다.

“이잉크는 아마존으로부터 6백만대의 킨들 파이어 태블릿 PC 주문을 2012년 하반기에 따냈다. 또한 FFS 패널을 가지고 3백만대 규모의 구글 태블릿 PC 주문도 받아냈다.”⁴⁾

“이잉크는 샤프와 특허공유(하이디스 FFS) 계약을 체결했으나 몇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왜냐하면 샤프의 최대 고객은 애플이고, 샤프는 (이잉크가 공급하는 킨들의 경쟁 품목인)아이패드 용 패널에 그 특허를 사용하

4) DIGITIMES, June 26, 2012

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⁵⁾

그리고 경영위기가 본격적으로 나타는 2012년 하반기부터는 아예 전자책이나 태블릿PC제조업체가 아니라 하이디스와 경쟁 관계에 있는 LCD패널 외주 생산 전문 업체들과도 특허공유 계약을 맺기 시작해 10월에 대만 AUO와 12월에 CPT와 10년짜리 특허 공유 계약을 체결했다.

표 7 > 하이디스 주요 기술 계약

일시	기술 협약 내용
2012.12	대만 CPT사와 하이디스 특허 공유 ⁶⁾
2012.10	대만 AUO사와 하이디스 특허 공유 ⁷⁾
2012.7	일본 샤프사와 하이디스 특허 공유
2010.12	일본 미쯔비치 전자와 하이디스 특허 공유
2010.4	일본 알파 테크놀로지와 하이디스 특허공유
2009.12	LG디스플레이와 PVI, 하이디스 포괄적 협력

물론 특허공유나 기술이용에 관한 포괄적 협력은 업계에서 종종 있는 일이다. 하지만 이잉크사의 전략은 단순한 협력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다. 하이디스가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광시야각 기술을 외부에서 마음껏 쓰도록 하고 그 대신 하이디스가 생산했어야 할 물량 역시 외부에서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이디스는 기술료 수입으로 5년간 308억원을 받았지만 그 이상으로 생산을 외부에 빼앗겨 손해를 입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이잉크사는 영업망을 확대하는 등 큰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인다.

특히 회사가 문을 닫느냐 마느냐 하는 기로에 선 2012년 하반기에 맺은 특허 공유 계약들은 하이디스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다. 대만 CPT는 이잉크사의 조인트 벤처 회사고, 대만 AUO사는 이잉크사가 투자한 주요 협력사이다.⁸⁾ 두 회사와의 계

5) DIGITIMES, Aug 12,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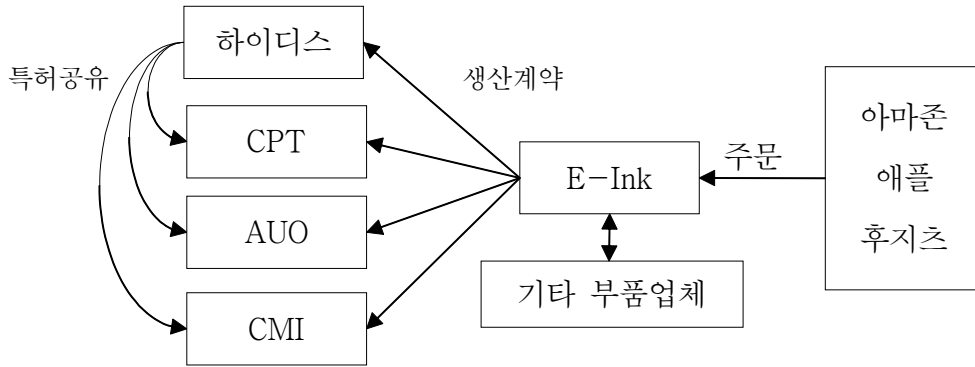
6) <http://www.einkgroup.com/news.php?recordId=398>

7) <http://www.osa-direct.com/osad-news/758.html>

8) CPT(중화그림튜브)는 대만에서 LCD패널을 생산하는 업체다. AUO(AU 옵트로닉스)나 CMI(Chimei Innolux's)역시 비슷하다. 하지만 이들이 가진 설비는 하이디스보다 후세대 모델인데, CPT와 AUO는 현재 6세대 라인을 운영 중이고, CMI는 5세대 라인을 운영 중이다. 세대가 올라갈수록 한 번에 큰 패널을 생산할 수 있어 생산성이 높다. 하이디스의 경우 현재 3.5세대 라인을 운영 중이다.

약은 10년 간의 장기 계약으로 하이디스의 생존에 관계없이 이잉크의 대만 협력사들이 하이디스 핵심 기술을 10년간 공유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림 8 > E-Ink 사업구조



이잉크 전략 속에서 하이디스의 주역할은 광시야각 기술을 외주 업체에 제공하는 것이다. 물론 외주 업체가 생산하지 않는 제품 일부를 이천 공장에서 생산하지만, 결국 생산 측면에서 보면 CPT, AUO, CMI 같은 대만 업체의 보조적 역할이 불과하다. 이잉크는 하이디스의 기술을 이용하고, 외주 생산업체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지만 하이디스는 생산도 빼앗기고, 기술도 빼앗기는 결과다.

계열사의 40%가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등 탈세 지역에 위치한 E-ink 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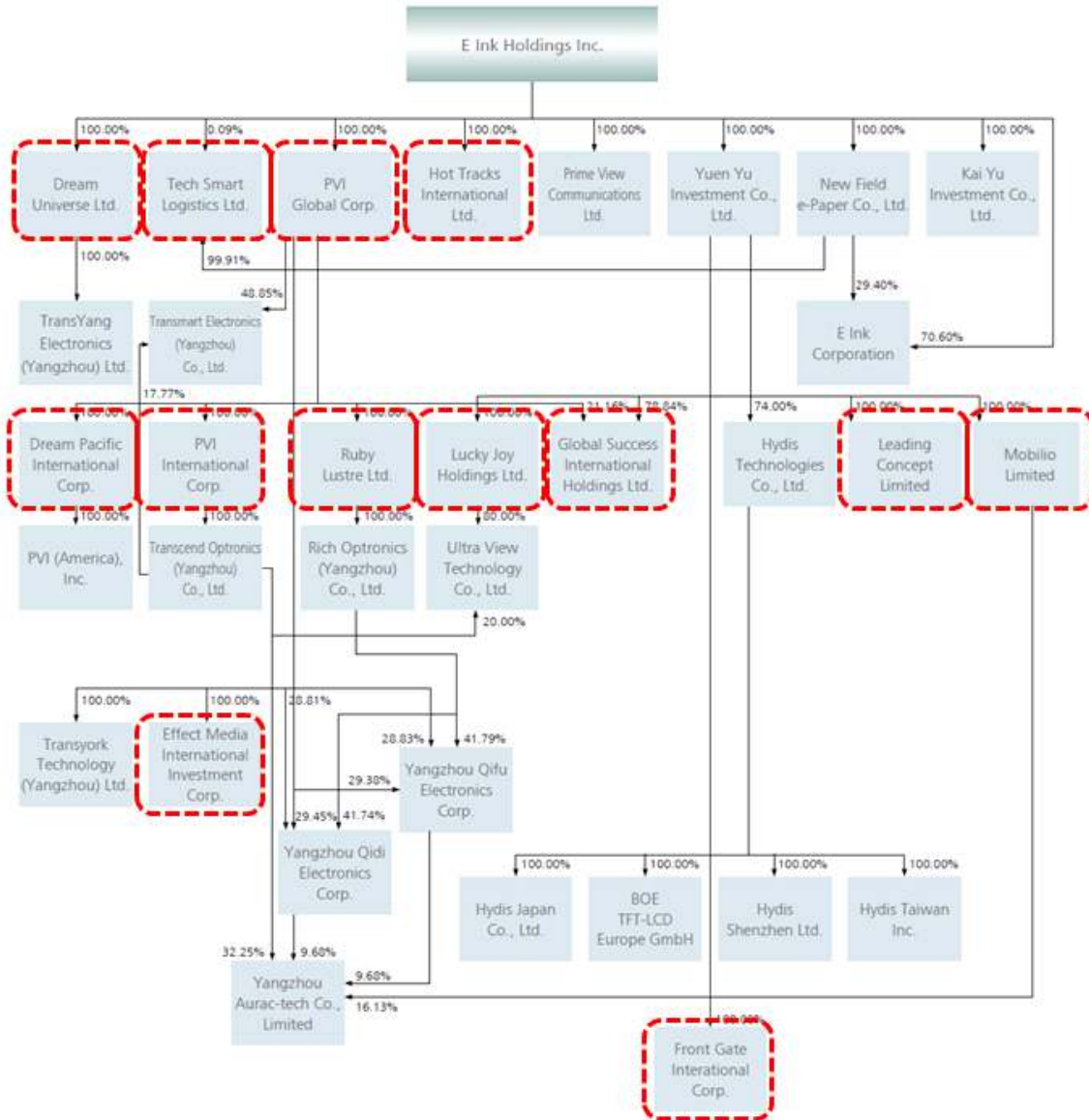
또한 이잉크사는 하이디스에 대해 다소 이상한 형태로 내부거래를 해왔다. 보통 그룹들과 달리 하이디스는 매년 거래를 하는 계열사들이 수시로 바뀌어 왔는데, 예를 들면 2009년에는 하이디스 중국 판매법인인 하이디스 선전을 통해 매출을 올리다, 2010년에는 최상위 지배회사인 이잉크홀딩스와 하이디스 대만판매법인인 하이디스 대만을 통해, 그리고 2011년에는 하이디스 상주와 이잉크의 대만 소재 금융투자 회사인 그랜드캐피탈인터내셔널을 통해 매출을 올리는 식이다.

표 8 > 특수관계자에 대한 수익 내역

(단위: 억원)	2008	2009	2010	2011	2012반 기
HYDIS SHENZHEN	187	958	-	1,023	358
E-Ink Holding	-	319	614	90	2
HYDIS Japan	484	196	-	-	171
HYDIS Taiwan	530	304	375	-	138
E-Ink Corporation	-	-	-	26	-
Grand Capital International	-	-	-	505	-
계열사에 대한 매출합계	1,303	1,828	1,036	1,670	670
매출액에 대한 내부 수익 비중	67.2%	92.9%	33.8%	33.8%	33.6%

이잉크 사의 지배구조가 매우 복잡하고 다수의 탈세지역 페이퍼컴퍼니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하이디스의 이런 변동적 내부 거래 구조 역시 중간 수탈과 관계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잉크사는 지배구조를 유지하는 핵심 기업들 대부분을 세계적 탈세 지역으로 유명한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두고 있으며, 페이퍼컴퍼니를 또 다른 페이퍼컴퍼니가 소유하는 식으로 지배구조 자체를 매우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있다.

그림 9 > E-INK 지배구조와 페이퍼컴퍼니



(자료: E-ink Holdings Annual Report)

이잉크는 위 그림과 같이 많은 계열사들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 중 실제 생산과 관련된 계열사들을 그렇게 많지 않다. <PVI Global Corp>, <Techsmart Logistics Ltd>, <Hot Tracks International Ltd>, <Global Success International Holdings Ltd>, <Mabilo Limited>, <Leading Concept Limited>, <Front Gate International Corp>, <Ruby Lustre Ltd>, <Lucky Joy Holdings Ltd>, <North Diamond International Co., Ltd.>, <Rock Pearl International Corp>, <Dream

Pacific International Corp>, <Dream Universe Ltd.> 등은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사모아, 모리셔스 등의 탈세지역에 위치한 페이퍼컴퍼니들⁹⁾, 서류 상에만 존재하는 기업들이다. 지분구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부분의 회사가 국제 탈세 지역에 위치해 있는 셈이며, 이잉크사 계열사 33개 중 40%인 13개가 탈세지역 페이퍼컴퍼니인 것이다.

이런 구조로 인해 이잉크사의 수익 구조는 매우 불투명하다. 예를 들어 이잉크의 LCD모듈 조립 회사인 TOC(TRANSCEND OPTRONICS(YANGZHOU) CO)는 두 개의 페이퍼컴퍼니(PVI Global, PVI International)에 종속되어 있어 LCD패널 제조 회사들과 TOC 사이 어떤 거래가 발생하고 있고, 얼마만큼의 이익을 보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세금 도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웠고, 그 회사를 통해 생산 공장을 소유하고 있으니 응당 그 목적에 맞는 불법행위들이 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하이디스 지배회사인 E-Ink 수익률은 17%

한편, 하이디스의 실질적 지배회사인 이잉크는 2011년 1조4천억원 매출에 2천4백억원의 순이익을 올렸다. 수익률이 17%가 넘는 수치로 제조업 기업 중 최상위권 수준이며, 재무구조 역시 부채비율이 35%에 불과할 정도로 안정적이다. 이잉크 전체적으로 하이디스를 통해 이뤄지는 매출이 30%에 육박하는데, 하이디스는 만년 적자고 지배기업은 이렇게 높은 수익을 올린다는 것을 봐도 내부거래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3. 전망과 대책

○ 박근혜 당선인이 발의한 산업기술유출방지법 개정안, 진심이 있었는지 하이디스에서 증명해야 한다.

9) <http://www.einkgroup.com/relations.php?language=tw&recordId=328>

박근혜 당선인은 `07년, `09년, `11년 산업기술유출방지법 개정안 제출.

핵심은 외국 자본의 인수합병에 의한 산업기술유출을 규제하자는 것.

박근혜 당선인이 가장 많이 대표 발의한 의안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유출방지법) 개정안이다. 당선인은 2007년 5월, 2009년 6월, 그리고 2011년 2월 세 번에 걸쳐 산업기술유출방지법 개정안을 제출했었다. 박근혜 당선인이 지난 10년간 대표 발의한 의안이 15개인 것을 감안하면 당선인이 꽤 높은 비중을 두고 추진한 법안임을 알 수 있다.

박근혜 의원이 제출한 산업기술유출방지법 개정안이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2006년 비오이하이디스의 부도 이후 대규모 ‘기술 먹튀’가 세상에 알려지면서부터다.

그림 10 > 2007년 박근혜 의원 산업유출방지법 개정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근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645
발의연월일 : 2007. 5. 21. 발 의 자 : 박근혜·강재섭·한선교	
...	
<u>주요내용</u>	
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해외인수·합병, 외국기업과의 합작투자 등의 행위로 인해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이 우려될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사전에 신고하도록 함(안 제11조제4항 신설 및 제5항).	
나. 국가핵심기술의 보유·관리기관의 해외인수·합병, 외국기업과의 합작투자 등으로 인한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이 국가안보 또는 국민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은 해당 행위에 대하여 중지·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6항).	

박근혜 의원이 2007년 제출한 개정안은 인수합병 및 합작투자에 의한 기술유출을

방지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었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인수합병이나 원상회복을 위해 나서도록 하는 것이었다. 특히 개정안이 발의되고 국회에 상정되었던 시기는 산업은행이 하이디스를 대만 회사 프라임뷰 인터내셔널(PVI)로 매각하려던 때였으며, 대만이 2000년대 중반부터 한국 LCD기술 획득을 위해 각종 기술유출 사건을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에 개정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꽤 높았었다.

하지만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07년 11월에 하이디스를 대만 PVI사에 넘겨버렸고, 법안 역시 2008년 5월에 임기만료 폐기 되었다. 당시 산업자원부는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의 개정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었는데 이렇게 규제를 엄격하게 하다보면 외국인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기술유출 방지와 원상회복에 관한 정부차원의 무관심과 법적 허점은 2009년 1월 상하이차의 쌍용차 기획부도사건으로 이어지며 지금까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박근혜 의원은 쌍용차 사태가 터진 직후 2009년 6월, 2007년과 비슷한 개정안을 다시 제출했다. 개정안은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 개발한 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핵심기술보유 기업의 인수합병 및 합작투자를 정부가 사전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 개정안은 이후 몇 차례의 수정을 거쳐 2011년 6월 말에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통과된 법안에서는 사전 승인을 사전 신고로 바꾸고, 보호기술 대상 역시 엄격하게 제한했다.

그림 11 > 2009년 개정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근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5150

발의연월일 : 2009. 6. 16.
발 의 자 : 박근혜·김선동·김태환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대상기관이 해당”을 “대상기관이 외국기업 등에 인수 또는 합병되거나 외국기업 등과 합작투자를 실시하여 해당 국가핵심기술이 이전되는 경우 또는 해당”으로 한다.

그림 12 > 2011년 개정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근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0802

발의연월일 : 2011. 2. 11.
발 의 자 : 박근혜·강길부·강용석

...

제한이유

그간 이 법은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및 국가안전보장과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였으며 산업기술보호 기반구축에 필요한 제도적 근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음. 그러나 현행법은 산업기술의 정의 등 불명확한 규정이 존재하고, 위원회의 기능 조정 등 운영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발생함. 또한 인수·합병 등을 통한 국가핵심기술의 유출방지

박근혜 당선자는 세 번의 개정안을 통해 산업기술 유출에 대해 관심을 가져 왔고, 특히 인수합병에 의한 기술 유출에 대해 특별하게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하이디스 10년의 역사는 바로 박근혜 당선자가 이야기하던 인수합병에 의한 기술 유출 역시 그 자체다. 그리고 그 피해는 1천여명의 노동자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수천억원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이디스 해법은 무엇보다 박근혜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 **이잉크, 하이디스에 대한 근본적 경영 전환이 필요하다.**

2012년 체결된 3건의 특허공유계약 취소.

외주화 된 물량의 국내 생산 전환.

장기적 투자계획과 단기 자금 확보 방안 제출.

현재 휴업이 진행되고 있는 하이디스는 5월 이전에 부도나 자본 철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본사의 자금 지원이 없으면 5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채무를 갚기가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이다. 앞에서 지적한 366억원 상당의 사채와 차입금을 하이닉스 자체 자금으로 상환이 불가능하다.

현재 하이디스의 경영진들은 인력 구조조정을 통해 적자 구조를 바꿔보려 하고 있다. 2011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적자 구조 탈피를 위해서는 4천억원 대의 매출을 기준으로 약 150억원 내외의 비용 절감을 달성할 수 있으면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현재 4백억원 대의 인건비 지출을 고려하면 35% 가량의 구조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940여명의 노동자 중 200여명을 감축하고, 올해 임금 동결, 상여금 반납 정도를 하면 달성 가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구조조정을 한다고 해도 1~2년 더 기업을 유지할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 기업 경영이 가능할 것 같지는 않다. 하이디스의 기존 설비와 지적재산권만 이용해 그룹 차원의 이득을 취했던 이잉크사의 경영 전략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

는다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하이디스가 생존하기는 쉽지 않다. 당장 삼성전자나 LG디스플레이가 8세대 라인을 중국에 건설하고 있는 상황에서 3.5세대 라인 이후 투자가 없는 하이디스가 시장에서 살아남기는 쉽지 않다.

현재 이잉크사의 경영 행태는 하이디스 지적재산권만 해외로 이전시켜 놓고 하이디스 자체는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에 가까워 보인다. 이잉크사가 투자한 외주 LCD 생산업체 AUO와 CPT에 하이디스 광시야각 기술을 2012년부터 10년간 쓸 수 있도록 계약한 것도 이러한 일환으로 보인다. 하이디스 입장에서 보면 대만 경영진의 배임 행위로 볼 수도 있는 계약이다.

무엇보다 우선 이잉크사가 경영위기 시점에 계약한 샤프, AUO, CPT와의 특허공유를 취소하고, 하이디스가 온전하게 이 특허권을 누릴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 특허를 잃으면 현재 상태에서 하이디스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 진다.

다음으로 인수 직후부터 시작된 다양한 형태의 외주 생산 물량을 모두 하이디스로 가져와야 한다. 이잉크사는 비용 문제를 들어 대부분의 생산을 대만 회사에서 하고 있다. 하지만 비용 문제가 발생한 것은 이잉크사가 투자를 하지 않아 악화된 측면이 강하다. CPT나 AUO에 외주 생산하고 있는 물량을 모두 하이디스로 가져오고, 또한 다양한 형태로 진행 중인 내부거래 과정에서의 손실도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하이디스가 지난 5년간 한 투자액은 설비 기반 제조업인 LCD업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적었다. 연 80억원 내외의 투자만 이뤄졌으니, 이잉크사는 하이디스를 중장기적으로 건전하게 운영할 생각이 아예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잉크사는 지금까지 하이디스를 이용해 막대한 이득을 챙긴만큼 장기적 투자 계획과 단기적 자금 확보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 이잉크, '먹튀'가 된다면 범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 현명한 판단이 필요.

이잉크는 최근 아마존, 구글과 하이디스 기술을 이용한 제품 공급을 계약.

아마존 킨들, 출시 예정인 구글 태블릿PC에 대해서도 윤리적 소비 논의해 봐야.

외국 ‘떡튀’ 자본들은 상하이차나 BOE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국내에 있지 않다는 점을 이용해 문제를 일으키더라도 국내에서 철수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러한 막무가내 태도가 일정정도 통해왔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쌍용차 사태를 경유하며 시민들의 생각도 많이 바뀌기 시작했다. 문제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윤리적 소비를 해야한다는 생각이 널리 퍼지고 있다. 하이디스에 대한 떡튀 행태는 쌍용차의 그것보다도 훨씬 더 극단적이었다. 이잉크가 만약 사회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본 철수를 단행한다면, 시민들이 이제 제대로 된 행동에 나서야 한다. 그 첫 시작은 아마존 킨들이나 조만간 출시 예정인 구글 태블릿 PC 등에 대해 분명한 항의를 조직하는 것일 것이다. 이잉크사가 공급한 패널이 들어간 제품에 대해 불매 운동까지 할 수 있어야 한다.

4. 정부차원의 대책과 사회적 감시로 제2의 쌍용차 사태를 막아 내자!

쌍용차보다 3년 먼저 시작된 ‘떡튀’

하이디스의 오늘은 쌍용차의 3년 후일 수도 있다. 범국민적 관심이 필요하다.

2009년부터 쌍용차 사태를 시작으로 근 4년간 한국사회 주된 이슈 중 하나는 외투 기업들의 ‘떡튀’ 문제였다. 2009년 쌍용차 부도 이후 3천여명의 노동자가 해고되었으며, 23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이 죽었고, 기술유출, 기획부도, 회계조작 등의 각종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하이디스는 쌍용차만큼 크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쌍용차에서 벌어진 대부분의 일들

이 3년 일찍 발생했었다. 단적인 예로 상하이차가 2007년부터 전산망 통합을 통해 쌍용차 설계도면들을 제 것처럼 들여다 본 기술유출 수법은 이미 2004년에 비오이가 하이디스에서 해왔던 일이었다. 기술진들을 중국으로 데려가 본사 투자 사업에 이용했던 것도 같았고, 핵심 기술을 이전 한 이후 한국회사를 부도처리해 버리는 방식도 같았다. 비오이는 2005년 중국 5세대 LCD 라인 공사에 한국 기술을 이용한 이후 2006년 하이디스를 부도내고 자본 철수를 단행했고, 상하이차는 2006년 카이런을 중국에서 생산해보더니 2008년 모노코크 방식의 SUV 생산기술과 디젤하이브리드 기술을 빼간 이후 2009년 쌍용차를 부도 처리하고 자본 철수 했다.

중국 기업에 의해 부도가 난 뒤 기업 운영도 비슷하다. 하이디스는 2년간의 법정관리를 거쳐 2007년 11월 현재 이잉크사에 매각되었고, 지금까지 4년째 이잉크사가 운영하고 있는데, 본사에서 투자는 하지 않은 채 기존 시설만 가지고 최대한 이익을 뽑아내는 경영을 하고 있다. 쌍용차 역시 마찬가지다. 2010년 마힌드라가 쌍용차를 인수한 이후 단돈 1원도 본사로부터 투자된 것이 없으며, 오히려 쌍용차가 현재 마힌드라를 위한 개발 사업을 대행하고 있는 모양새가 되었다. 이렇다보니 쌍용차 역시 하이디스가 4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매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개선이 잘 되지 않는다.

	쌍용차	하이디스
매각 년도	2005년	2002년
매수 기업	중국 상하이차	중국 비오이
주요 문제점	중국기업 인수 후 적자 전환 중국에 서버 두고 기술유출 주요 개발진 중국 이전 신차 개발 중단	중국기업 인수 후 적자전환 중국에 서버 두고 기술유출 주요 개발진 중국 이전 차세대 모델 개발 중단
떡튀 방식	부도 후 자본 철수	부도 후 자본 철수
재매각 연도	2010년	2007년
매수 기업	인도 마힌드라	대만 이잉크
주요 문제점	생산 확대에도 적자 계속 인도 중심 투자 계획	매출 증가에도 적자 확대 계열사로의 외주화
현재 상황		자본 철수 저울질, 라이선스 빼가기

하이디스 부실 경영의 원인과 앞으로의 해법을 찾는 것은 이런 점에서 비단 하이디스만의 문제가 아니다. 쌍용차를 비롯해 ‘떡튀’ 논란이 있는 한국의 외투기업 대부분에 관한 해법을 찾는 문제이다.